

數 및 서로 連絡하므로서 이룩될 수 있다.

6. 種實收量을 포함한 收量構成形質에 對한 地域數, 反復數를 決定하는 方法을 試圖했으며, 品種育成을 為하여 反復數의 增加보다 地域數의 增加가 훨씬 重要하였다.

9. P.E. 피복, 질소시비량 및 시비방법이 토양과 단옥수수생육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이 석순*, 백 준호

특명 P.E. 피복과 질소시비량 ($N 8, 12, 16, 20 kg / 10a$) 및 시비방법 (전면시비, 파구시비)이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 단옥수수의 발아 및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양온도는 생육초기에는 P.E. 피복구에서 무피복구에 비하여 5~10°C 높았으나 보온효과는 점차 감소하여 파종 30일 이후에는 보온효과가 없었다.
2. 지표면의 토양경도는 비가 온 다음날은 피복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비온후 3일째는 무피복구에서는 P.E. 피복구에서 보다 높았다.
3. 토양산도는 P.E. 피복구에서는 시비량과 시비방법에 관계없이 파종후 8주까지, 무피복에서는 6주까지 점차 감소한 후 증가하였다.
4. 토양의 전기전도도 (EC)은 파구시비에서 전면시비에서 보다 높았고 N시비량이 많을수록 높았으나 P.E. 피복유무에 따라 경향이 달랐다. 파구시비에서는 6주까지 EC가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며 그 정도는 P.E. 피복구에서 무피복구에서 보다 컸다. 전면

시비하였을 때는 P.E. 피복구는 파종 후 6~8주까지 EC가 증가 경향이었으나 무피복구에서는 4~6주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

5. 출현율은 전면시비구에서는 피복과 시비량에 관계없이 57~67% 이었으나 P.E. 피복에서 파구시비하면 출현율이 40%이었고 무 10. 재식밀도 차이에 따른 단육수수 열자제거의 영향

작물시험장: 박근용, 강영길, 박승의, 문현귀

재식밀도를 달리할 때 열자제거가 단육수수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단육 1호와 Golden Cross Bantam 70를 공시하여 10^a당 4,170, 5,500, 6,670, 11,100본 재식하여 열자가 15cm이내 자랐을 때 제거하는 구와 제거하지 않은 구의 생육 및 수량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본당 열자수가 감소하였다.
2. 엽면적 지수를 제외하고는 품종과 열자제거, 재식밀도와 열자제거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3. 재식밀도가 증가할수록 간장, 엽면적지수, 간엽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장과 주당 이삭수는 감소 경향이였다.
4. 10^a당 상품가치가 있는 이삭수는 5,560~11,000본 재식에서, 이삭무게는 5,560~6,670본 재식에서 비슷하였다.
5. 열자제거에 의하여 간장, 엽면적 지수, 간엽수량이 유의성있게 감소되었고 이삭수량은 평균 8% 감소되므로 단육수수의 열자는 제거하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